

◆ 08년 6월 고2 13~16번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락 줄거리] 방울재가 댐 건설로 수몰되고 칠복은 광주의 산동네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칠복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와 댐 주위에서 낚시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칠복은 낚시터에서 정을 두들기다 낚시꾼들에게 구타당한다.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꺼여!”

㉠강촌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릴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동 물고 참아 냈다. 강촌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인들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 사람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메기굿’을 할 때처럼 어개가 들쭉거리면서 경중경 중 춤을 추고 싶어져 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하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히여.”

㉡강촌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취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평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잡마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뚫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대는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같이나 섬찟섬찟 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땡이 버

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 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독후두독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길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펄떡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내고 뼈거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꼭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씩여 보았다. 어둠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툴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길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소리인지, 징소리인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컷바퀴를 후벼파고 들려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시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 게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소리」 -

* 메기굿 : 지신밟기

* 툴상스러운 : 투박하고 상스러운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③ 전지적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함으로써 이야기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14. 위 글의 중심 사건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징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ㄱ~ㄷ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칠복이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 댐 주위 낚시터에서 징을 친다.
 ㄴ. 칠복의 징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장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ㄷ.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지만, 징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 ① ㄱ의 '징소리'는 낚시터로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칠복의 울분이 담긴 소리가 아닐까?
 ② ㄱ의 '징소리'는 생계유지에 급급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의 의미를 일깨우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③ ㄴ의 '징소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칠복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④ ㄷ의 '징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또 다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 같아.
 ⑤ ㄷ의 '징소리'는 칠복을 쫓아낸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일 거야.

15. ㉠~㉣ 중, <보기>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은 심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물의 심리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경우, 그 행동도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보기>는 [무슨 말]을 추리해 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네덜은 낚시꾼들 상대로 목구멍 타작이나마 하는 거야 배가 아프나면서 ①덕석물이를 해서라도 낚 쫓아내줬다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자네덜은 내 맘을 몰려. 지난 번 ②호수의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헤어진 방울재 사람들 얼굴이 죄다 뵈이드라니께. 그리고 ③정월이면 징징 울어라, 액년 쫓게 울어라 하면서 신나게 징을 치던 때가 생각나더랑께. 물속에 갇혀뿌린 마을도 찾고 싶고 ④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보고잡아 미칠 것 같더구먼. 나가 징을 친 건 자네덜 목숨 끊어놓자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일씨. 가라면 가야제. ⑤갈 곳은 있음께 날랑은 걱정 말어.

◆ 04-9평 43~47번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처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땀시땀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쭙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땀줄같이 앉아서, 목이 터져라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쭙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엄병을 앓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왁살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중략)

“자네 정신 말짱히니께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것이 좋은겨.”

[A]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대차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져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캔록캔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충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B]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서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뽕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슬푸레하게 들려 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

나 박을 틈도 없이 꼭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뿔뿔벌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 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의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슬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소린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꺾바퀴를 후벼 파고 들려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지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 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쉼새없이 들려 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제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소리 -

43. <보기>의 ㉠~㉣ 중, 서사 전개상 기능이 위 글의 ‘칠복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힘이 장사였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다. 예로부터 평민 중에 큰 장사가 나면 나라에 반역을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청년을 관가에 밀고하였다. ㉣군사들이 끌려왔고, 청년은 순순히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그날 밤 청년 집 우물에서 한 마리 ㉤백마가 하늘로 올라가며 슬픈 소리로 울었다. 이후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말라 버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는 재를 지내주자 비로소 물이 다시 고였다. 그 연못을 말샘[馬泉]이라 불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회생양으로 삼고 있다.
② 강촌 영감은 칠복이가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④ 강촌 영감은 인정에 이끌리면서도 현실을 따르고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은 침묵으로 강촌 영감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45.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감각적인 어휘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③ 시간적 배경을 통해 상황의 암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명멸하는 불빛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46. 위 글을 읽고 ‘징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징소리에는 칠복이의 한이 담겨 있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뒤 힘들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쫓겨나야 하는 한이지.
② 칠복이의 징소리에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춤추며 장을 치는 모습에서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
③ 징소리의 음색은 깊고 묵직하잖아? 고향이 물에 잠기는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꺾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의 꿈이 나직하게 퍼져 나오는 것 같아.
④ 내가 주목한 것은 칠복이가 쫓겨나 버스에 올라타며 하고자 했던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에 들은 징소리는 칠복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한 것이 아닐까?
⑤ 나는 징소리에는 사회적 울림도 담겨 있다고 봐. 댐이 만들어지고 고향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꺾어야만 했던 방울재 사람들의 비극을 알리려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지.

47. 고향에 대한 ‘칠복이’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황폐화된 고향을 새로 일구고자 한다.
② 과거와 달라진 고향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③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고향을 찾으려 한다.
④ 변해 버린 고향에 어떻게든 적응해 살려고 한다.
⑤ 자신을 버린 고향이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머느리를 닦달했다.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 몸살이 나서 땀 났을 때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겨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머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짜증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 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꾸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킁킁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멀치것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짹조름한 오줌버께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 고리답답, 쓰고 시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스로 잠이 들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 돌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호물호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네 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뚜벅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예미한테서 냄새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제잉. 그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위디 사람 사는 집이간디, 그것이사 귀신이 사는 집이제잉.”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쿵쿵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냐.**”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어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순가락질만 해댔다.

“이눔아, 예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예미가 자식 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어가며 말했다. ㉡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끝을 후벼 뚫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 문순태,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전환하여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중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아내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어머니가 한 말에 아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 ①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드러나 있군.
- ②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군.
- ④ ‘어머니의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의 말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문제시하는 자식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아주 심해요’라는 ‘나’의 말과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냐’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표출되고 있군.

◆ 13년 11월 고1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도시로 나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어머니는 특유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다. 어머니 냄새를 핑계로 아내가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아 집안은 어머니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된다.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여 데려오고, 어머니를 동생 집에 맡긴 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냄새 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게 다 뭐예요?”

[A] 아내가 주걱처럼 생긴 첫 주걱을 들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여자의 몸으로 첫 지계를 지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마을을 떠돌면서 첫 주걱으로 새우젓을 떠서 팔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무렵 어머니한테서는 폭 작은 짓국 냄새가 진동했다. 첫 주걱에서는 그때의 어머니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어머니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도봇장수*며 첫 장수를 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아내는 냄새나는 보파리 속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노망나신 거 아녜요?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주워다 놓은 거죠?”

아내는 첫 주걱으로 녹슨 호미며 손저울과 되를 쿵쿵 쑤셔 대며 거듭 물었다. 나는 말없이 녹슨 호미를 집어 들었다. 오랜 세월 손때 먹은 호미 자루가 변질거렸다. 물로 칼칼하게 씻은 듯 흙이 묻지 않은 호미 날 쪽에 불긋불긋 녹이 슬어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농사꾼 집에서 호미나 낫 등 농기구에 쇠꽃이 피면 집안이 땅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었다. 나는 호미를 들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손때 먹은 자루에서는 시지근한 땀 냄새가 났고 녹슨 날에서는 비릿한 녹내가 났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보파리에서는 고리고리한 새우젓국 냄새를 비롯해서 짹조름한 간고등어 냄새, 시큼한 쇠꼴 냄새, 비리척지근한 멸치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참으로 묘한 냄새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 가지 냄새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치장을 하고 소리를 내며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 냄새들이 아우성치며 내 뺨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냄새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그 냄새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거부감이 일시에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 어머니 냄새의 진원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보파리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나는 아내의 그 말에 심한 저항감을 느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의 보파리를 버려야 한다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거나 한동안 실랑이를 했다.

“도대체 이런 허접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쓰레기?”

“아니면 보물이라도 되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려 왔다.

“형님, 혹시 어머니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휘감겼다.

[B] “큰일 났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자세하게 이야기해 봐.”

“우리 집에 오신 후 맥이 빠진대면서 밥도 안 드시고 방 안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보여요.”

나는 할 말을 잃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 윤곽이 그려지지가 않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끝이 살짝 매달린 가느다란 눈도, 뭉뚱한 코도, 크고 도톰한 입도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너, 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했냐?”

나는 생뚱스런 질문을 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무슨 냄새?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냄새가 나겠조 뭐.”

“알았다. 어머니 꼭 찾아야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부터 껴입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가슴이 떨려 왔다.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선 도시를 빠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큰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자꾸 부스럭거렸다. 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말이 별장게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오목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신산한 세월이 발효하면서 풍겨져 나온 짙은 사람의 향기였다. 고통스러웠던 긴 세월의 더께 같은 것. 어머니의 냄새는 팔십 평생 동안 폭 곱삭은 삶의 냄새이며, 회로애락의 기나긴 시간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체의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모든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C] 도시를 빠져나온 나는 무작정 고향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달렸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들끼리 온몸으로 서로에게 부대끼며 물결 치고 있었다. 땅의 혼령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바람처럼 훑어 덮쳐 왔다. 나는 국도 변에 차를 세우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향기로운 냄새가 아우성치며 온몸의 핏줄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어머니의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 문순태,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

* 도봇장수: 물건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적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여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와 아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준다.
- ② ㉠은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냄새이다.
- ③ ㉠과 ㉡은 ‘나’와 아내가 제거하고자 했던 냄새이다.
- ④ ㉠과 ㉡은 아내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은 ‘나’와 아내가 과거에 느꼈던 어머니의 냄새이다.

36.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아내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 ③ [A]를 계기로 [C]에서 '나'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 ④ [B]는 [C]에서의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적 배경이 된다.
- ⑤ [A]와 [B]에서 드러난 중심 사건이 [C]에서 해결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여정은 타인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삶을 연결하고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추억이다. 추억이란 타인과 함께 살며 겪었던 공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① 어머니가 사라진 사건을 통해 '나'는 어머니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겠군.
- ② '나'가 동생에게 어머니의 냄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나'와 동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의도였겠군.
- ③ '나'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고향으로 향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④ 보따리에 대한 '나'와 아내의 태도가 다른 것은 어머니와 공유한 추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향기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 꽃이 피기에 알맞은 보슬비도 화산택(華山宅)이에게는 사뭇 쌀쌀하고도 차기만 했다.

복술이는 이제 막막 바로 이 집이라고 분명 가르쳐 줬다. 그런데도 화산택이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주뼉주뼉 기웃거리고 망설이기만 했다.

아니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 봐도 자기 아들이 살고 있을 여염 살림집은 아니었다.

사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 되나 마련해서 두메서 십 리 밖, 경주가도(慶州街道) S장—(장이래야 ㉠뜨내기 보따리 장사가 몇몇 모여드는)에 갔다 대는 것이 고작인 화산택이로서는 농작이 쌓아 올린 블록 담이라든지, 페인트 칠한 판자 문이라든지 또 그 안에 번쩍거리는 유리창문들— 이 모두가 무슨 관청— 일테면 촌에서 보는 면사무소나, 지서 같기만 했다.

—양이지거리, 양이고 말고 택도 없다— 화산택이는 이렇게 중얼대면서 골목 밖을 내다 보고 눈으로 복술이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고 서둘던 복술이가 여태껏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중략)

화산택이는 사 년 동안 보지 못한 막내며느리의 모습을 그려다. 이러러니,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동안, 화산택이의 망막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영상이 뿌리 깊이 박혔다. 그것은 언젠가 산소를 다녀간 김 의관네 만며느리 바로 그대로였다. 일테면 곱다랗게 낭자를 하고, 축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다. 옥양목 버선을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달아 신고…… 그리고 한 뒷배기[핸드백]를 살포시 쥔다— (두메 사람들이 핸드백을 안 것은 김 의관네 며느리를 위시해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보이소 새색이요, 혹시 돌이[石]라는 사람 모르겠는고?”

돌이란 막내아들의 아명이었다. 문패에는 박석근(朴石根)이라고 써였다.

“모르겠소, 그런 사람!”

유독 ‘겠소’에 힘을 넣은 양갈진 소리다. ㉡화산택이는 비로소 맘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는 잠겨지지 않는 문을 새색이가 연신 덜커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택이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택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어떻게 간달 수도 없다.

“돌이고 쇠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소!”

그리고는 연신 힐끗힐끗 화산택이를 쏘아보면서 새색이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기가 요즘 부쩍 는 무슨 방물장수니, ㉢동냥아치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새색이는 골목 밖에서 큰길로 꺾이면서 또 한번 힐끗 돌아보았다. 화산택이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꼬라지갑세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베. 아니꼬운 것…….”

참말이지 두메서는 들일이 한창인 무렵이면 개나 닭들만이 남고 방문조차 열린 채 마을은 껍질처럼 빈다. 그래도 도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화산택이는 ㉣귀때기 새파란 젊은것의 하는 것이 정말 아니꼽고 패썹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패썹한 것은 복술이었다. 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남의 집을 대 주고 가 버렸으니 화산택이는 그야말로 저문 날 길 댈든 나그네였다.

화산택이는 큰길에 나가 보기로 했다. 도둑 혐의도 아니꼬웠

지만 행여 아들을 만날까도 싶었다. 그새 아들이 지나가 지나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화산택이는 또 가슴이 덜컥했다. 주척주척 걸어나갔다. 그러나 채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 복판에 발이 붙어 버렸다.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추씨 눈을 수 없이 깜박거리면서 보고 보았으나 분명 아들이었다. 화산택이는 그만 목이 꼭 메었다. 말보담 눈물이 앞섰다. 그새 아들은 화산택이를 비켜 서너 걸음이나 지났다. 화산택이는 그제서야

“아야!”

아들은 힐끗이 돌아만 보고는 또 걸었다. 모르는 모양이었다.

“나대, 야야!”

화산택이는 비로소 뒤집어 쓴 치마를 훌쩍 걷어 내렸다. 아들은 눈부터 뚱그레졌다. 화산택이는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아들은 완연히 당황해 했다. 길 아래위를 살피면서

“어쩐 일인지요?”

화산택이는 애원이나 하듯 목멘 소리로

“보고 싶어 왔다!”

아들은 잠깐 동안 뿔을 망설이고 나서

“들어갑시다!”

그리고는 앞을 서서 바로 아랫편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중략)

“목어 바라, 꿀밤[도토리] 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탄탄하다만…….”

그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아들]가 하도 질긴다 싶어 해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기니 목어 바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했을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폐쇄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린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세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 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회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뿔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건넌방에서는 아직도 소곤소곤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거[자기들] 좋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땃잎처럼 굵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 ㉤아랫도리를 벗은 손자들이 제멋대로 자고, 축물 사발을 옆에 놓고 쥔신을 삼고 있는 만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만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질 것만 같았다. 또 뒤쳐 놓는다.

— 오영수, ‘화산택(華山宅)’이

52. 위 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독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雨]'가 내리는 배경의 설정은 어머니가 곧 당면하게 될 난처한 처지를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 ② 높은 담벽을 가진 집과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낮은 초가집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 ③ 남편의 아명을 알면서도 노인 앞에서 모른 척한 새댁의 행동을 통해 도시인의 비정함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닐까?
- ④ 손녀가 꿀밤 떡을 먹지 않고 할머니 앞에서 뺨은 시늉을 하는 장면을 설정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일까?
- ⑤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갯길을 넘고 있는 화산댁의 상상은 주제 형상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

53. ①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화산댁이'의 생각의 흐름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낮설지만 아들네 집인 것으로 추측함 → 문패를 보고 제대로 집을 찾아왔다고 안도함
- ② 집이 너무도 낮설어서 불안해 함 → 이 집이 아들네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감을 느낌
- ③ 핸드백을 들었던 며느리의 예전 모습을 회상함 → 아들은 며느리 덕분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행복해 함
- ④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해 부끄러워 함 → 며느리도 느꼈을 부끄러움을 자신이 먼저 면하게 해줘 다행이라 여김
- ⑤ 난처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 생각함 → 새댁이 자신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54. <보기>를 참고하여 '화산댁이'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 유형에 관해 탐구해 본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오영수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 <요람기(搖籃記)>의 '소년'은 산간 마을에 살면서 토속적인 생활을 즐기며 꿈과 소망을 키워 나가는 인물이다.
- <메아리>의 젊은 '동욱 내외'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맛본 뒤 산으로 들어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 <후조(候鳥)>의 순박한 '구칠'이는 마치 후조[철새]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생활 터전을 떠돌아다니는 인물이다.
- <갯마을>의 '해순'은 '상수'와 재혼을 하여 깊은 산골에 들어가 콩밭을 매면서도 늘 자신이 살았던 갯마을을 그리워한다.
- <박학도(朴學道)>의 '학도'는 순박한 인물로서 거친 세파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다.

- ① '화산댁이'는 토속적인 삶을 편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소년'과 유사하다.
- ② '화산댁이'는 도시적 공간을 거부스럽게 느낀다는 점에서 '동욱 내외'와 유사하다.
- ③ '화산댁이'는 기껏 아들집에 찾아왔다가 금방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구칠'이와 유사하다.

- ④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누워서도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해순'과 유사하다.
- ⑤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왔다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아들 내외를 탓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도'와 유사하다.

55. 위 글과 <보기>에 각각 나타나는 '아들'의 태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꺾어 떠 보였었다.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나의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청준, '눈길'

위 글	<보기>
① 어머니가 보여 주는 정을 외면해 버리는 아들	어머니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아들
② 어머니를 소외시켜 떠나게 하려는 아들	어머니를 원망하고 곁을 떠나가려는 아들
③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아들
④ 어머니와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고민하는 아들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들
⑤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자책하는 아들

56.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어휘 학습을 진행하였다. () 안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1점]

1단계 (확인하기)	'무르팍'은 '무릎(어근) + -악(접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함
2단계 (뜻 찾기)	'무르팍'은 '무릎'을 속되게 이르는 말임을 알
3단계 (예 찾기)	어근 뒤에 붙어서 앞말을 속되게 이르는 뜻이 더해진 단어의 예에는 '가슴팍', '()' 등이 있음을 알

- ① ㉠ : 뜨내기 ② ㉠ : 동냥아치 ③ ㉠ : 귀때기
- ④ ㉠ : 아랫도리 ⑤ ㉠ : 누더기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물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뭇살을 얹고 영달이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몇 살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적 걸터앉아서도 만사 태평인 꼴이었다. 영달이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너 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로 가요?”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 “방향 잘못 잡았수. 거진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밑을 쓱 훑쳐냈다. ㉡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달이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집에 가는군요.”

사내가 일어나 땀방울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쳐매면서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디 무슨 일자리 찾아가요?”

㉢ “택은 오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왔었소? 인제나 마찬가지죠.”

“자, 난 이제 가봐야겠는걸.”

(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독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독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개털모자 끝까지 독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뽕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히 쫓다가 잔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는 독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새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차도 양쪽에 내뿜자루를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앙상한 포플러들이 줄을 지어 섰는 게 보였다. 그는 독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사내를 불렀다.

“여보쇼, 노형!”

그가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영달이는 달려가서 그 뒤편에 따라붙어 힐떡이면서,

“길이 갑시다. 나두 월출리까진 길은 방향인데…….”

했는데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 영달이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말했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오. 작년 이맘때는 좋았지요. 월 삼천 원짜리 방에서 작부랑 살림을 했으니까. 임동실한테 정 말 갈 데 없이 뽕뽕하게 됐는데요.”

“우린 습관이 되어 버서.”

사내가 말했다.

“삼포가 여기서 몇 린 줄 아쇼? 좌우간 바닷가까지만도 몇백 리 길이오.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몇 년 만입니까?”

“십 년이 넘었지. 가 봤자…… 아는 이두 없을 거요.”

“그럼 뭇 허러 가쇼?”

“그냥…… 나이 드니까, 가 보구 싶어서.”

그들은 차도로 들어섰다. 자갈과 진흙으로 다져진 길이 그 런대로 걸기에 편했다. 영달이는 시린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처박고 연방 꼼지락거렸다.

“어이 육실허게는 춥네. 바람만 안 불면 좀 낫겠는데.”

사내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는데, 털모자와 야전잠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겠지만 원체가 혈색이 건강해 보였다.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침은 자셨소?”

“웬걸요.”

영달이가 열썩게 웃었다.

“새벽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셈인데…….”

“나두 못 먹었소. 찬샘까진 가야 밥술이라두 먹게 될 거요.

진작에 뻗을걸. 이젠 겨울에 움직일 생각이 안 납디다.”

“인사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구 합니다.”

“나는 정가요.”

㉤ “우리두 기술이 좀 있어 봐서 일단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4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②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③ 비속어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43. ‘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한 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은 겨울철에 길을 떠나고 있어. 이것은 이들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 ② 영달은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영달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해.
- ③ 주어진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정체가 제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거야.
- ④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떠나온 길이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 ⑤ 길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삶에서 소중한 것은 길의 끝보다는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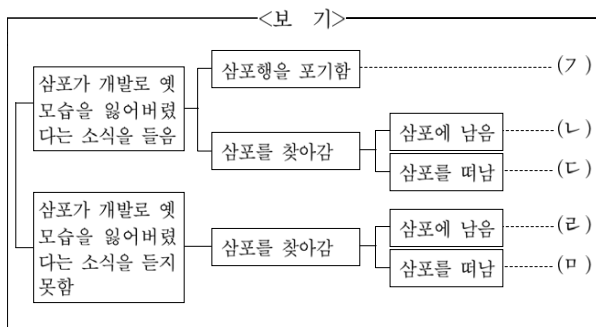
44. (가)부분을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영달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장감이 고조되는 배경 음악을 넣어 양자 택일의 갈등을 나타내도록 한다.
- ② 정씨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영달의 시선을 교차시켜 영달의 내면을 표현한다.
- ③ 표정 연기를 통해 정씨를 따라가고 싶어하면서도 선뜻 따라나서지 못하는 내면을 그려 내도록 한다.
- ④ 카메라를 인물로부터 멀리 잡아 길 위에 혼자 남아 있는 영달의 모습에서 외로움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⑤ 질척이는 독길을 배경으로 삼아 그 너머로 조금씩 사라지는 정씨의 뒷모습을 통해 영달의 내면을 암시하도록 한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달이가 생계 방편을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② ㉡: 고향을 향하고 있는 정씨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 짐작하지 못하고 떠도는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자신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정씨에 대한 영달의 반감이 배어 있다.
- ⑤ ㉡: 정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영달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

46. <보기>는 이 소설의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구상해 본 것이다. (㉠)~(㉡)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 옛 모습을 잃어버린 고향은 의미가 없다. 귀향을 포기하는 결말을 통해, 옛 모습 그대로의 고향을 마음에 간직하려는 애절한 심정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② (㉡): 고향이 변했지만 귀향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옛 모습은 사라졌어도 고향에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결말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잘 그려낼 수 있다.
- ③ (㉢): 한 가닥 미련을 갖고 고향을 찾아가지만 변해 버린 모습에 절망한다. 결국 다시 떠나야만 하는 결말을 통해 근대화로 인한 고향 상실감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④ (㉣): 기대에 부풀어 고향 땅에 도착한다. 그러나 고향의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⑤ (㉡):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희망에 부푼다. 하지만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또다시 유랑하는 모습을 통해 뿌리뽑힌 자의 이픔을 잘 그려낼 수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골목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어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채쫓았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두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도 팔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겨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빠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땀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① “덥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성급병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중략)

그들은 일곱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컸었는지 과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균용차를 사정해서 타구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②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③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④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선큐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⑤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⑥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쥔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⑦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⑧ “내 이름 백화가 아니예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34. ㉠와 ㉡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로 사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삼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④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5. ㉠에 이어서 ‘정씨’가 할 수 있는 말을 <보기>와 같이 구성하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게다가 백화가 일자리도 주선했다”
 [] 아니겠소?”

- ① 일석이조(一石二鳥)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금의환향(錦衣還鄉)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길은 인생의 행로로서 그 길을 걷는 이들의 삶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는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연히 길 위에서 마주쳐 동행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동행은 일시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낯선 타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유대감과 온정을 느끼게 된다.

- ① ‘산골 마을’을 지나가는 인물들이 추위와 허기 속에서도 여정을 계속하는 것에서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읽을 수 있군.
- ② ‘폐가’는 ‘불가’에 다가앉아 온기를 느끼는 일시적인 쉼터가 된다고 할 수 있군.
- ③ ‘읍내’는 백화와 영달, 정씨와 같이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장터’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군.
- ⑤ ‘역’은 백화가 ‘고향’으로 가면서 세 인물의 동행이 끝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영달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정씨는 영달의 처지를 고려하여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정씨와 영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03년 10월 고1 47~51번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 작부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영달은 백화가 잘 견지 못하자 그녀를 업고서 산길을 걸어 감천 읍내에 도착한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편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신해 드릴게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근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 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켜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흠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첻, 며칠이나 견디나…….”

“뒷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 으루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 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차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뒷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테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다구.”

“뒷땡에요?”

“넌들 아나, 뒷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뒷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 췌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뒷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 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져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뻤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4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등장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사건 밖에서 사건의 내용을 관찰하여 제시한다.
- ③ 인물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독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사건에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 ⑤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충하기도 한다.

48. 윗글을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할 때, 배우들에게 주문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2점]

- ① ‘정씨’는 고향에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각되도록 연기했으면 좋겠어.
- ② ‘백화’는 시골을 떠돌아다니는 작부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때로는 순수함이 배어 있는 연기가 필요해.
- ③ ‘영달’ ‘정씨’ ‘백화’는 서로간의 처지를 이해하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리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해.
- ④ ‘노인’은 표정 연기에도 신경을 써서 전달자로서의 입장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 ⑤ ‘영달’이는 공사관을 찾아 돌아다니는 무력한 서민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해.

49.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점]

- 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이야. 개발 붐에 의해 ‘삼포’가 과거의 흔적도 없이 변해버렸거든.
- ②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아야겠어. 그러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 ③ 결말 처리 방식이 인상적이야. 여운을 통해 등장 인물의 내면 세계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거든.
- ④ 작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
- ⑤ 산업 사회라는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산업화가 초래한 고향 상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거든.

50.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2점]

- ① 백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없어요. 삼포로 함께 가요.”
- ② 백화는 기쁜 듯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 당신과 함께 고향으로 갈 수 있으니 좋아요.”
- ③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예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 ④ 다가온 백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여비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 ⑤ 백화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영달에게 다가왔다.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아름답게 동행해요.”

51. ㉠~㉥ 중, 상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년 6월 고1 32~35번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꺾 서방이 서 영감을 애걸의 상대로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꺾 서방의 매잡이 일에 제일 간섭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벌써 꺾 서방을 절반이나 낚이나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데 비해 서 영감은 그래도 그러는 꺾 서방을 한사코 나무라 들기라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꺾 서방은 오히려 그 영감에게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틈을 본 것이다. 그 날 밤으로 꺾 서방은 서 영감을 찾아갔다. 영감은 펄쩍 뛰었다. 막연히나마 이미 짐작을 하고 간 일이었다. 꺾 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매가 떠나 버린 것을 안 서 영감은, 그것 참 매란 놈이 꺾 서방 사람될 기회를 주느라고 그리 된 것이라며 다행스러워하기부터 시작했다.

“이제 딱 마음을 잡고 딱 일을 손대 보게. 우리 집에서도 할 일이 많으니. 그간 자넨 매라는 놈에게 미쳐 있었지. 한테 그 매 귀신이 제풀에 떠나주질 않았나.”

㉠ “모래 장터로 번개쇠의 기별이 올 텐데요.”

꺾 서방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글쎄, 내 생각 같아선 요즘 어느 낚나간 녀석이 그런 걸 찾아주겠다고 건드려건드려 장터로 매를 가지고 나올 턱도 없지만, 또 오면 어때. 모른 채해 버리든지 자네 병 여윈 셈치구 그 사람더러 아주 가져다 매를 모시라지.”

“하지만 그런 짓을…….”

“하여튼 나는 매 값을 낼 수 없어. 그런 줄 알게. 그러구 절대루 장날 기별을 보내올 놈도 없어.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진짜 후리배지.”

㉡ 꺾 서방은 물러 나왔다.

㉢ “매 소리를 하겠거든 다시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인간이 불쌍해서 그쯤 알아듣게 살 궁리를 해보라고 했으면 귀가 좀 뚫릴 법도 한데 원 사람이라군…….”

그런 소리를 뒤에 남기고 버버리네 아랫방으로 돌아온 꺾 서방은 밥도 굶고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밤이 늦어서야 버버리 소년이 부엌을 뒤져다 준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조금 넘기고 나서, 꺾 서방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 에이 번개쇠놈, 아무리 생각이 없는 날짐승이기로서니…….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늦게 꺾 서방은 또 다시 서 영감을 찾아갔다. 장날을 하루 앞두고 먼저 마을로 번개쇠의 기별이 들어왔던 것이다. ㉤ 삼십 리 바깥 천관리(天冠里) 마을로 대낮에 매가 들어왔다고 천관리를 지나 들어온 마을 사람이 기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매주는 내일 장으로 매를 가지러 나오라더라는 것이었다.

“큰 병일세 그러. 그래 자네 요즘 매를 부려서 평을 한 마리나 잡은 일이 있나, 마을에서 물이를 나서 주나. 대관절 그건 찾아다 뭘 하겠다는 건가, 이 갑갑한 사람아.”

영감은 이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 꺾 서방을 건너다 보았다.

“사냥을 못 하더라우요, 기별이 왔는데 모른 채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자네가 지금 도리를 찾을 땐가.”

“…….”

꺾 서방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영감의 말에 승복을 하고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오히려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있는 모양이 서 영감이 무슨 말을 하든 기어코 매 값을

만은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매 값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매를 찾아오면 또 자네 꼬락서니가 못 보겠다는 말야.”

“저도 사냥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제 사냥은 되지도 않구요.”

“그럼 자넨 지금 정말로 그 매주의 도리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서 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근해졌다.

“하여튼 번개쇠를 찾아야겠어요.”

“그럼 약속해 주겠나?”

영감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목소리가 낮아졌다. 꺾 서방은 영문을 몰라 처음으로 영감을 정시했다.

㉥ “매를 찾지만 하고 사냥 따윈 다시 나서지 않는다고.”

“…….”

꺾 서방은 또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매는 찾아오되 매병은 가져오지 말라는 말일세. 실상은 나도 전혀 자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왜 나도 전에는 자네들을 부리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미쳤다고 뭐 얻어먹은 것 없이 자네 하는 일을 못 마땅해 하겠나. 세상이 그러서는 안 되겠기에, 더구나 자넨 선량한 줄 내가 아는 터라 좀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라고 이러는 거지. 나도 실상 어떤 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게 될 때가 많기는 하지. 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지금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매라는 놈 때문이 아닌가 말일세.”

결국 그 날 영감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하고나서 쌀 한 말 값을 내놓았다. 그 돈으로 매를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사냥을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라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다. 그러나 꺾 서방은 돈을 움켜쥐고 나오면서 끝내 거기 대한 약속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시류를 좇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류에 맞춰 생활을 잘 요리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그 시류에 민감하고 영리하게 적응하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만족한다- 꺾 서방은 영감의 집을 나오면서 어렴풋이나마 그 비슷한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꺾 서방은 실상 그 이전부터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감이 그렇게 꺾 서방을 걱정해 주고 충고를 해 주는데도 꺾 서방이 한 번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청준, 「매잡이」-

3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듯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배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33. ㉠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번개쇠의 행방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 ② 번개쇠로 인해 생긴 손실을 아까워하고 있다.
- ③ 번개쇠를 돌려받지 못한 냉정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번개쇠를 지금까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번개쇠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 하고 있다.

34.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에 대한 제작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광 서방이 말할 때 고집스러운 표정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하게 한다.
- ② ㉢ : 광 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게 한다.
- ③ ㉣ : 서 영감은 광 서방이 돌아서 가는 모습 뒤에서 말하도록 한다.
- ④ ㉤ : 광 서방의 번개쇠가 대낮에 천관리로 날아드는 장면을 오버랩하게 한다.
- ⑤ ㉤ : 서 영감의 단호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무거운 음악을 사용하게 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잡이」는 요즈음 쉽게 볼 수 없는 매 부리는 사람을 통해 인물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작품에 나타난 장인(匠人)들은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죽을 때까지 고수한다. 하지만 이들의 직업은 오늘날의 막강한 산업화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 산업 사회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상처받고 사라져 가는 전통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장인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 ① 광 서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음으로써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 ② 광 서방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 영감에게 도움을 받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고수한다.
- ③ 광 서방을 통해 산업화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광 서방이 지키고자 했던 매잡이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 ⑤ 광 서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도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12년 11월 고1 25~28번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제 날을 잡아서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마침 화제가 시들해서 별다른 의도도 없이 한 말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윤경수와 김성달이도 금방 동의를 하고 나섰다.
 “그거 좋지. 맨날 서울 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단말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그래.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잖아, 따뜻한 아랫목에 지지고 앉아서 동동주라도 한잔 마시면, 아 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걸.”
 애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그랬는데 최진철이는 이런 일은 기왕 애기가 나왔을 때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차일피일하다가 호지부지되고 마는 법이라고 우습게 다그치는 바람에 오늘의 모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내친 걸음에 날짜까지 정해 놓고 나머지 ㉠ 몇 가지 원칙까지 세웠다. 우선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 버스 터미널에 모여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잡아타고 갈 것, 짐은 일체 갖지 말고 되도록 빈 몸으로 갈 것 등이었는데, 그것은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의 문명이나 잡담(雜沓)*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 말자는 의도에서였다. 누군가가 그러나 최소한도 치약·칫솔 따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자, 제안자인 최진철이 시골에 가면 왜 돌소금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걸로 닦아야 ㉡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라고 우겼다.
 “그래 좋았어. 비록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도 좋아. 고향과 엇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 준 고향 같은 무드 속에 며칠 묵었다 오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들 넷이 모두 산골 촌놈들 아니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오래 그런 정경과 등을 지고 살아왔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성달이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넷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했다. 김성달의 말마따나 넷은 한결같이 산골 출신이고 그런 속에서 뽕가 굵었는데, 어찌다가 서울서 부산하게 살다 보니 십 년 이쪽 저쪽 고향에 다녀온 녀석이 없는 것도 꽤 우연한 일이었다. 공공로게도 넷이 다 부모를 모셔 온다든가, 생활의 그루터기를 서울로 옮겨 온다든가 해서, 이미 고향에는 피차 아무 근거가 없는 탓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만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거의 고향과 인연을 끊고 살아온 것은 ㉢ 지방 출신으로서도 좀 희귀한 일이었다. 물론 이런 연줄로 고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동안 그쪽 소식을 풍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터이긴 해도 그것은 이미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 우리들의 생활과는 별로 직접적으로 닿는 데가 없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이번 여행은 극히 우연한 기회에 극히 우연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큰 벼슬을 했다거나 큰 돈을 모은 후 걸어온 길을 여유 있게 돌아보는 몸짓에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구차하나마 그런대로 서울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잠시 숨을 돌려보는 고갯마루에 서서 한번 생활에 휴지부(休止符)를 찍어 보는 그런 포즈에서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도 몰랐다.

(중략)

서울로 오는 버스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말이 없었다. 그까짓 삼박사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하루를 앞당겨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환경 속에 다만 며칠을 건디어 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난 데 대한 ㉣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무교동이나 종로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山村)의 정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알팎하고, 배부른 여담(餘談)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 숨이 각각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방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무교동으로 나가 오백 시시짜리 생맥주를 단 한 번에 꺾어 단숨에 들이켰다.

“인제 살 것 같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말을 뇌까리고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떠돌고 웃곤 하였다. 초가을, 이 서울 동네에서 풍기는 술 냄새, 고기 냄새, 하수도 냄새에 자기를 휩쓸어 넣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해헤거리며 지껄여 댔다.

“우린 이제 별수없이 서울 사람 다 됐는갑다.”

[A] 한참 만에 윤경수가 껍 힘없이 얘기하자 김성달이나 최진철도 그래, 그런 모양이야 하고 동의를 했다. 술집을 나오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요량으로 각기 과자봉지 하나씩을 사들고 불광동으로, 미아동으로, 중곡동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서로 잘 가라고,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 때 나는 이놈들아, 우리들이야말로 촌놈이라고, 형편없는 촌놈이라고 속으로 몇 번씩이나 되뇌었다. 동시에 우리들의 등골뼈 밑으로 철팔 센티미터쯤 자란 속물(俗物)의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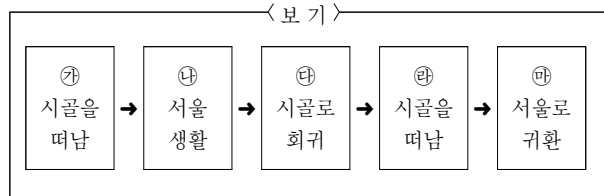
— 최일남, 「서울 사람들」 —

* 잡담(雜沓):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복잡복잡하고 복잡함. 또는 그런 상태.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체험한 인물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있다.
- ②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액자식 구성을 통해 과거의 두 체험을 관련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이 체험한 다양한 사건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건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6. 위 글의 사건 전개 양상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에서의 ‘떠남’에 대한 이유는 각각 다르다.
- ② ㉠과 ㉣에서 느끼는 ㉢의 ‘시골’에 대한 인식은 각각 다르다.
- ③ ㉢은 ㉣에서의 고단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은 ㉣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된 것이다.
- ⑤ ㉣에서는 ㉢로 인해 ㉣을 재인식하고 있다.

2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여행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자신들이 떠날 여행에 대한 들뜬 기대라 할 수 있다.
- ③ ㉢은 여행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④ ㉣은 자신들이 찾아간 여행지에 대한 실망감이라 할 수 있다.
- ⑤ ㉤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여행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28. [A]의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을 되찾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
- ② 도시인의 소시민적 속성에 대해 자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자녀를 챙기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시골 출신으로 겪는 소외감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